

“진보의 탈 쓴 ‘악의 실체’ 그렸죠”

등단 30년 맞아 '해리 1·2' 펴낸 공지영
이중인격자와 타락한 성직자 이야기
“부당함 보면서 신중하기 어려워”
김부선 옹호 발언 입장 밝혀



‘해리’ 출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공지영 작가. /연합뉴스



작품은 겉과 속이 다른 악인의 실체를 폭로한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羊頭狗肉)을 떠올릴 만하다. 선한 모습으로 겉이 포장된 악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주인공인 천주교 신부 ‘백진우’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인물이다. 그러나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장애인 봉사 단체를 내세워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부를 축적합니다.”

백진우의 애인으로 장애인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이해리’가 등장한다. 그녀는 불우한 성장 과정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일으킨다. 그러나 작가는 “이해리는 뒤로 사람들의 은밀한 부위에 ‘봉침’을 놓는 등 기이한 수법으로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인물이다”며 “페이스북을 이용해 자신의 선하면서도 불쌍한 이미지를 퍼뜨린다”고 덧붙였다.

작가는 인물들의 이중성을 ‘해리성(解離性) 인격 장애’와 연결짓는다. 책의 서두에 이 용어를 적어놓고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한 사람 안에 둘 이상 존재하여 행동을 지배하는 증상. (후략)’이라는 백과사전 정의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작가는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아 마음을 먹고 오래 취재를 했다. 모든 이야기는 모두 놀랍게도 거의 다 실화인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수집한 실화들을 하나로 엮어 짜깁기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특정 인물, 사건과 직접 결부 짓는 것을 경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로 얼마든지 진보와 민주주의의 탈을 쓸 수 있고, 그런 탈을 쓰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체득한 작가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

이 소설은 올해로 등단 30년을 맞는 작가가 열두 번째 발표하는 장편소설이다. 전작 ‘높고 푸른 사다리’ 이후 5년 만에 내는 신작이다. 이전의 ‘고동어’, ‘도가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 사회 문제를 작품으로 형상화해온 작가는 다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소설은 주인공 ‘한이나’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어떤 사건과 마주치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악(惡)의 실체와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가는 별거벗은 임금님을 보고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한 인간으로서나 살아가는 제 기질도 그렇고, 작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지영(55) 작가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편 ‘해리 1·2’ (출판사 해냄) 출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지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과 관련해 김 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일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공지영은 “제가 워낙 생각도 없고 앞뒤도 잘 못 가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내 성격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제 자신이 그동안 부당한 것을 보면서 싸워왔던 일화를 들려주며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나에 대한 독자들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는 없었다”고 했다.

공지영은 신작 ‘해리’를 “한 마디로 어떤 악녀에 관한 보고서”라고 소개했다.

“악이란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주변에서 목격한 악들이 그 이전에, 1980년대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단순함과 광장히 달라졌던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재벌과 가진 자의 횡포가 극심해진 사회에서는 간단한 말

불금에 읊는 풍류...8월3일 남도국악원 무료 공연



국악의 향연 '교방굿거리' 공연 모습.

계곡이나 피서지를 찾아 무더위를 쫓는 것도 좋지만 조용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자연의 소리와 숨결을 간직한 우리 음악으로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상열)은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마련한 ‘국악의 향연’을 펼친다. 8월 3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

이번 공연은 무더위와 일상의 피로에 지친 심신을 조용히 안정시켜줄 수 있는 여름휴가 컨셉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기악합주 ‘호적풍류’, 판소리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 전통춤 ‘살풀이’, ‘교방굿거리’, 민요 ‘오돌또기’, ‘동당계타령’, ‘이여도사나’, ‘옹헤야’, 타악 ‘밀양 오복춤’ 총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요국악공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20분 진도읍사무소, 6시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이나 장악과(061-540-4031-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성경 안팎의 예수의 말, 인문학으로 보다

시라토리 하루히코 ‘예수의 언어’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찬 것들은 언젠가 밖으로 흘러넘친다. 그것이 바로 언어다. 그러나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쓸모없는 취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열매란 바로 언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다. 대영교회의 세습과 기독교의 배타성을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다. 혹여 그를 신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예수를 성인(聖人)으로 모셔오려고 한다.

‘성경’과 외경 속 예수의 말을 인문학자의 눈으로 재해석해 편역한 ‘예수의 언어’ (을유문화사·사전)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저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으며 ‘이 책 한편으로 ‘성경’을 알 수 있다!’ 등 다수의 책을 펴냈던 시라토리 하루히코다. ‘신약성경’과 외경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초역(超譯의역을 넘어선 번역)이기에 말 그대로 저자가 재해석한 예수의 말이다. 번역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일번역과를 졸업하고 현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일하면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현 번역가가 맡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체적으로 책은 저자의 성경 해석이 짙게 배어 있다. 예수는 은유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자가 의미를 추측하고 해석한 느낌이 강하다. 또한 예수가 이 시대에 존재한다면 현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의도를 담은 편역도 담겨 있다.

본문은 총 184개의 구절과 세 개의 ‘예수의 우화’로 구성돼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포도밭의 일꾼, 방탕한 아들의 우화가 소개돼 있는데 세 편의 우화는 문학과 회화 그리고 영화 등에서 수없이 인용됐었다.

또한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염두에 두고 ‘신약성경’과 ‘성경’에 실리지 못한 외경 속 예수의 말을 소개한다. 예수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려 했는지 초점을 맞췄다.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성경’이 중요한 무언가를 내포한 책이라면 신학이나 교회라는 중개자 없이도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할 것이다. 즉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건축상’ 참가작 9월10~28일 공모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회장 강현규)는 제22회 ‘광주시 건축상’ 참가 작품을 공모한다.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지난 1989년부터 건축 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건축사, 시공자, 건축물에 시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6개 건축물에 대해 시상했다.

응모 대상은 건축사 업무등록을 한 자의 작품으로 최근 5년 이내 광주시 관내에서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에 한한다. 작품접수 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주거·비주거 부문에서 각각 금상1작, 은상1작, 동상1작 등 총 6작품을 선정한다.

당선작 건축사에게는상패와 상금이 수여되고

시공자에게는 상패가,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동패가 수여된다. 접수는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품과 함께 오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광주건축사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당선 작품은 오는 10월 31일~11월 4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규 회장은 “작년에 비해 설계 건축사에게 수여되는 상금을 두배로 늘리고 응모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 만큼 우수 건축작품들이 많이 응모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21-00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원하게 음악 한 병...8월4일 ‘원보틀 라이브’ 사연 받아요

관객의 사연을 읽어주며 그에 어울리는 곡으로 채워가는 ‘원보틀(One Bottle)’의 양방향 소통 공연 ‘BOTTLE LIVE(보틀라이브)’가 오는 8월 4일 오후7시 청소년 삶디자인센터(광주 동구 중앙로)에서 열린다.

현재 원보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onebottle12) 메시지 또는 댓글로 관객들의 사연을 접수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노래를 선물한다. 일렉트로닉 팝 여성 듀오 원보틀은 올해 광주시

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8문화예술펀딩 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이하 만만계)’에 참여해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만만계는 네이버 해피빈과 다음스토리펀딩을 통해 모금이 진행 중이며, 온라인 1100여만 원, 오프라인 3600여만원이 모금됐다. 기부 참여 방법은 해피빈 모금함(http://happylog.naver.com/gjcfgive.do) 또는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을 검색하면 된다. 문의 062-670-795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펜션건물 맞춤형 방수 시공 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시공전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장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목포 (061)284-0485
전남 (061)683-0485
H.P 010-6603-040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